

## 文化を展示するということ

著者	崔 仁宅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178-183
発行年	2000-07-24
URL	<a href="http://doi.org/10.15021/00002229">http://doi.org/10.15021/00002229</a>

## 文化を展示するということ

崔仁宅（宮崎公立大学）

このたび国立民族学博物館による重点研究プロジェクト「文化表象の博物館人類学的研究」『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の研究集会は、私にとって幾つかの点で大変新鮮な研究集会であったので若干の感想を述べておくことにする。

まずは集会のテーマがしめすごとく、「ものの展示」が「文化の表象」であることをはっきりと前置することによって、展示側の企画意図を強く匂わせたことであろう。博物館や民俗資料館などがものを展示することで一定の文化事象を表象しようとするのはごく当たり前ことであろう。しかし、展示の目的に応じては、映像資料や文献資料などが用いられるとしてもやはり展示行為自体「もの」に大きく頼らざる得ない。その過程で、ややもすれば羅列的な展示（特に時系列の場合）になりやすいが、この点、民博は研究機関としての役割を多く担っているので展示プログラムの深度を深める事が可能である。このような意味で、朝鮮半島の文化をいかに表象するかという議論を踏まえつつ展示プログラムを組んだのは、「展示行為」と「異文化研究」双方をフィードバック関係に押し上げ、博物館学や文化人類学、比較民俗学といった関連領域に新たな問題提起を呼び起こすきっかけになったと思われる。例えば、シンポの過程でも指摘されたように植民地文化の展示、在外韓国人文化の展示、北朝鮮文化の展示などきわどい議論を呼び起こすのに足る試みであったと考える。

また、「現代に生きる伝統文化」というコンセプトを用いることによって、韓国文化の多重性を展示技法の中に生かそうと努力した点、評価に値しよう。博物館に対して一般的に「博物館行き」という言葉が意味する「博物館とは何か古いもの、珍しいもののある場所」というかびくさいイメージは払拭されつつある> [武士田 1994 : 218] 昨今において、現代を展示するという試みは幾多ある問題を抱えていても行われるべきであろう。これは朝倉氏の基調報告でいう「意味ある過去」として、現代に息づいている韓国の伝統文化を表象しようとする意図が果たして見る側に十分伝わるかどうかという結果如何を問わず数々の話題を提供すると思われる。例えば、現代の生活文化を展示する場合、その基点をどこにおくのか。もし産業化を基準にするならば、産業化以前と以降を区別する幾つかの指標をどのように抽出するのか。地域性

## 文化를 展示한다는 것

崔仁宅 (宮崎公立大學)

이번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의한 중점연구 프로젝트 「문화표상의 박물관 인류학적 연구」 『일본에 있어 한국문화의 표상』의 연구집회는 나에게는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대단히 신선한 연구 집회였기 때문에 약간의 감상을 적어 보기로 한다.

먼저 집회의 테마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물건의 전시」가 「문화의 표상」인가를 분명하게 전제함으로써 전시측의 기획 의도를 강하게 풍기게 했다는 것이다. 박물관 및 민속자료관 등이 물건을 전시하는 것으로써 하나의 문화사상(文化事象)을 表象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전시 목적에 따라 영상자료나 문헌자료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전시행위 자체는 「물건」에 많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자칫 하면 나열적인 전시(특히 時系列의 경우)가 되기 쉽지만, 그 점을, 민족박물관은 연구기관으로써 많은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프로그램의 심도를 심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문화를 어떻게 표상하는가 라는 논의를 토대로 전시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것은 「전시행위」와 「異文化 연구」라는 양자를 피드백 관계로 밀어 올려, 박물관이나 문화인류학, 비교민속학이라는 관련 영역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심포지움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식민지 문화의 전시, 재외한국인 문화의 전시, 북한 문화의 전시 등 절박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대에 살아있는 전통문화」라는 컨셉을 사용함으로써, 전시기법의 가운데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박물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박물관 가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쩐지 오래된 것, 진귀한 것이 있는 장소」라는 낡은 이미지가 계속 불식되고 있다> [武士田 1994: 218]는 오늘에 있어서, 현대를 전시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朝倉씨가 기초보고에서 말한 「의미 있는 과

という特殊性を乗り越えて展示しようとする場合、都市部にも農村・漁村部にも共通する物質文化をいかに縦覧的に捉えるのか。衣食住という日常生活を現代というテーマで展示する場合、その意義は何であるかなど様々な議論が起こりうる。この点、松戸市立博物館の「常磐平団地の誕生」というテーマで2DKの生活再現を試み、その一部始終を論文にまとめた青木〔青木 1996：52〕が「現代という自分たちとの差異が見出し難く、価値判断のつけにくい、現在と直接に結び付く時間を展示の対象にすることは、それだけ展示に対して厳しい問題が突きつけられることになる」と指摘したとおり、過去と現在の時間的落差があまりなく、観覧者側の実体験の内にあるものを展示する場合は、展示意図と技法が厳しく問われよう。

さらにこれらの現代展示の対象が異文化である場合は、エミックとエティックの問題が加わってより厳しい対応を迫られよう。特に、今回シンポに参加したメンバーのほとんどが韓国人として博物館学や周辺領域の専門家であり、自分たちが直接的に経験してきたものの展示ということで幾つかの厳しい指摘があったのを鑑みても展示の難しさを垣間見ることが出来る。現代展示のテーマや企画意図をより鮮明にしなければ、日常のわれわれの生活空間それ自体が一つの展示場というふうになりかねない。また、単なる古き良き時代というノスタルジックな懐古主義にはまりすぎ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今回の展示替えにあえて現代という視覚を取り入れることによって、今後、上記の幾つかの議論点をより深く踏ま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のでその意義は大き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

一方、この度の研究集会が韓国語を共通語として行われたことに私自身日本では初めての経験だったので新鮮な衝撃を受けたことであろう。日本における研究集会に韓国語を共通語として用いるということはあまり前例のない試みだったように思われる（ただし、私の狭い経験の限りでは）。道具としての言語とは言え、用いる言語によって議論の進め方が違ってくる。具体的に私の場合は、母語を使用することによって直感的な内容をスムーズに表現出来たわけだが、逆に日本人の諸研究者の韓国語による表現内容はより直観的なものではなかったのかと思われてしまったことである（もちろんその逆も十分にあったと思われるが）。これは韓国と日本に限られたことではなかろうが、特別な関係にあるとする両文化圏の専門家たちが日本国内で韓国語を用いて公の議論を交わしたことに自分勝手ながら感動したのである。自文化による自文化理解と異文化による自文化理解の多様性を実感させてくれたといった観点からまさにエミックとエティックと言う視点の交差を味わうことが出来たのはうれしい。結局、

거」로써, 현대에 숨쉬고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표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보는 측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아닌지 라는 결과 여하를 떠나서 많은 이야기 거리(話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대의 생활문화를 전시하는 경우, 그 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만약 산업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산업화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몇 가지의 지표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지역성이라는 특수성을 뛰어 넘어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에서도, 농촌·어촌에서도 공통되는 물질문화를 어떻게 縱覽적으로 받아들일까? 의식주라는 일상생활을 현대라는 테마로 전시하는 경우, 그 의의는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점, 松戶시립박물관의 「常磐平團地の 탄생」이라는 테마로 2DK의 생활재현을 시도, 그 일부 시종(始終)을 논문으로 정리했던 青木이 〈현대라는 자신들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가치판단을 하기 어려우며, 현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시간을 전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전시에 대해 엄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青木 1996: 52]고 지적한 대로, 전시 의도와 기법이 엄밀하게 추궁되어 질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현대전시의 대상이 異文化일 경우는, 이미크적(emic)이고 에틱한(etic) 문제가 더해져 보다 엄격한 대응이 강요된다. 특히, 이번의 심포지움에 참가했던 멤버의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 박물관학이나 인접 영역의 전문가이며,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왔던 물건의 전시라는 것에 얼마간의 엄격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봐도 전시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현대전시의 테마나 기획의도를 보다 선명하게 하려면, 일상의 여러 가지 생활공간 그 자체가 하나의 전시장이라고 하는 식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단순히 옛날이 좋았더라는 노스텔지어적인 회고주의(懷古主義)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의 전시교체에 즈음해 현대라는 시각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 차후, 앞서 언급한 몇 가지의 논의점을 보다 깊게 근거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의의는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의 연구집회가 한국어가 공통어로 실시되었다는 점에 나 자신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 연구 집회에 한국어를 공통어으로써 사용한다는 것은

文化を展示するということもこれらの内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また門外漢が勝手に思ってしまう。

<参考文献>

武士田忠 1994 「地域博物館の抱える諸問題」 『日本民俗学』 200号, 日本民俗学会, pp. 218-229

青木俊也 1996 「現代史展示の実際—2DKの生活再現をめぐる問題—」 『日本民俗学』 208号, 日本民俗学会, pp. 40-57

전례가 없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도구로써의 언어라고 하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논의의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나의 경우,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직관적인 내용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일본인 연구자의 한국어에 의한 표현 내용은 보다 직관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두 문화권의 전문가들이 일본내에서 한국어로 공식적인 논의를 교환했다는 것에 제멋대로 감동한 것이다. 自文化에 의한 自文化 이해와 異文化에 의한 自文化 이해의 다양성을 실감시켜 주었다는 관점에서 확실히 이미크적(emic)이고 에틱한(etic) 시점의 교차를 맞볼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즐거웠다. 결국, 문화를 전시한다는 것도 그것들 내에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다시 한번 문외한이 자기 멋대로 생각해 보았다.

#### 참고문헌

- 武士田忠 1994 「지역박물관이 안고있는 문제들」 『일본민속학』 200호, 일본민속학회, pp.218-229
- 靑木俊也 1996 「현대사전시의 실제-2DK의 생활재현을 둘러싼 문제」 『일본민속학』 208호, 일본민속학회, pp.40-57